

영암



2018 / No.131

주를 사모하는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내 영혼이 진정 목마름에 불타오르고,
사모함에 병들고,
주님을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게 하소서.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님의 사랑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내 영혼의 바닥을 뚫어 주소서.
내 영혼이 배고픈 자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샘이시며 영원한 빛의 근원이시며
참 기쁨의 우물이신 주님만을 목말라 갈망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언제나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소서.

성 보나벤투라 (Sanctus Bonaventura, 1217~1274)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의 신학자이자 사상가

저서: 성 프란체스코 전기



02	성시	주를 사모하는 기도
04	말씀의 샘물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됩시다 · 유상진 담임목사
06	추모사	존경하는 이도명 장로님을 보내며 · 이순길 장로
08		故 이도명 원로장로님을 추모하며 · 장지우 장로
10		故 한성철 원로장로님을 추모하며 · 심상훈 장로
11		故 최운옥 권사님 천국 환송사 I · 윤석봉 장로
12		故 최운옥 권사님 천국 환송사 II · 장지우 장로
14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즐거운 찬양과 맛있는 간식이 있는 곳 · 방서진(초등 1부)
15		우리들의 겨울 성경학교 · (초등 2부)
16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사람 · 신가은(중등부)
17		우리들의 겨울 수련회 · (고등부)
18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 김진영(청년부 하늘공동체)
20		다윗,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다 · 이성민(청년부 푸른공동체)
21	제자훈련	예수님의 부르심 · 박진희(초등 2부)
22		삶 속에서의 예배 · 홍용수(중등부)
23	예닮동산 간증문	예닮동산 레인보우 · 이제숙 집사
24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 오경민 성도
26	특별새벽 기도회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 박봉근 집사
28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 공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 조규완 장로
30	구역지도자 수련회 간증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 윤태주 집사
32	영화칼럼	실패한 영웅을 통해서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브루스 맥도널드 감독의 '삼손' · 강진구(안수집사, 영화평론가)
3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영암교회의 선교 동역자님들께! · 이성호 선교사(케냐)
36	찬송가 해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 김혜림 집사(소망교회)
37	영어 성경공부 간증문	정말 행복한 영어성경반 · 한혜정 성도
38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39	영암소식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됩시다



유상진 담임목사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망각하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녀양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임한 미국의 전대통령 클린턴과 부시는 재임시 가장 힘들었던 일로 ‘자녀교육’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일은 가장 기쁜 일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가르치고 성장시켜주는 스승이 되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모두 초보운전자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한 없이 부족해 보이듯 부모 역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고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자녀 양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로 양육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양육해야합니다. 동시에 자녀 양육을 통해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부모가 성장하지 않으면 자녀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앙입니다. 부모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범을 자녀 앞에서 보여주어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닌 삶으로 배웁니다. 교회 가라고 입이 닳도록 야단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있는 삶인지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른 신앙교육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한다고, 교회에 가야 한다고 말로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삶속에서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며 배웁니다. 부모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와 집착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으로 서로를 대하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신뢰, 안정감, 감사 대신 죄책감, 상처, 애증, 원망, 부담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존중이 사라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공감하고, 명령이 아닌 스스로 기도하며 결정하도록 도와줄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주를 향하여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애2:19). **Y**



존경하는 이도명 장로님을 보내며



이순길 장로

크고 흰 옥좌와 그 위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앞에 당당하게 서 계실 장로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기들의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사온데, 장로님은 옥좌로부터 올라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희로애락을 잊게 하시면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하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하신 줄 믿사옵고 영광과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장로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쉐 실버스타인의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인공 이십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 때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곤 했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어 돈이 필요하다며 나무를 찾아 왔습니다. 나무는 “내 사과를 따다가 팔면 너는 돈이 생겨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자 청년이 된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갔으나 나무는 다 내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집이 필요하다며 집 한 채만 마련해달라고 청하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 소년은 기뻐하며 나무 가지들을 베어 갔습니다. 한동안 돌아오지 않던 그는 장년이 되어 나무에게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을 태우고 먼 곳으로 데려갈 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기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라고 하며 자기를 아낌없이 모두 내주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 없어 미안해했습니다만 이젠 노인도 소년도 필요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밑동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몸을 퍼면서 노인에게 와서 쉬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처럼 사셨던 장로님, 장로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어른이시기에 더욱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더 많은 것을 지도 받고 언행심사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음에 헤어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장로님! 배우려는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도를 다하시며 모이



기에 힘쓰신 그모습 그대로를 우리 모두가 뒤따르겠나이다. 장로님이 쓰러져 입원 하시기 전까지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모습 만 봐어도 우리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1967년 영암교회 장로로 취임하신후 지난 해가 바로 장로임직 50주년이 되는 해로 저희 교회로서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며 전무후무한 일이라 어버이 날에 전교 인들 앞에서 축하하려 했으나 입원 중이시라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게만 느껴집니다.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을 유효하게 사용하신 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쓰러지시기 전 까지도 배우는 데는 중단함이 없으셨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을 TV에서 볼 수도 있었으며 하모니커나 아코디언은 수준급으로 때때로 위문 연주도 하셨습니다. 당회 서기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늘 협조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순종적인 자세는 병원에서든 매일반이었습니다.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직장 생활을 했던 저희들은 장로님을 가리켜 ‘오희이’라고 했습니다. 갖은 병마가 장로님을 자리에 앉혀 놓으려 해도 장로님은 다시 일어나 활기차게 뛰셨습니다.

장로님께서 40대 후반에 간이 나빠서서 장기간 입원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대로 하세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이외의 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간에 좋다는 한약이나 그 밖에 값비싼 약을 보내왔으나 모두 폐기처분했지.”

우리도 장로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향하겠사오니 장로님 마음 놓으시옵소서. 장로님,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이제 우리들의 본향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젊은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겁연쩍어 “장로님, 이리요세요 엘리베이터 타세요.”라고 하면 운동삼아 걷겠다고 하시면서 한계단 한계단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가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는 먼 길, 절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장로님을 영접하는 천군 천사의 나래에 올라타 편히 가소서.

장로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Y**

2018년 2월 12일 장로님을 떠나보내며
장로 이순길

故 이도명 원로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지우 장로

이 사진은 대광고 강당에서 대광초 학생들(전체 800여명) 앞에서 황광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장면을 이도명 장로님께서 찍으신 사진입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황광은 동화집도 있고 아동 설교에도 유명하신 분인데 목사님께서 별세 하신 후 김희보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사랑을 받느니보다 주께 하소서」 책 표지로 선정된 사진입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평소에 장로님께서 황 목사님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못 잊어 하셨기에 장로님의 작품사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장로님께서서는 하늘나라에서 빙그레 미소 짓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의 닮은 점은 온유하신 성품과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는 점입니다. Y

2018년 2월 12일 장지우 올림



황광은 목사님의 설교모습 / 이도명 장로님 작



이도명 원로장로님 약력

장로님은 이창주님의 7남3녀중 장남으로 1927년 3월 22일에 출생, 2018년 2월 9일에 별세하심(만 90세).

학력

- 1945~1947 신의주제일공업학교 졸업.
이때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의 도화선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 목숨 걸고 공산주의에 항거, 끝내는 자유를 찾아 월남하심
- 서울 문리 사범대학과 단국대학 문학부 사학과 졸업,
- 1968~1970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학위 취득)

사회봉사 및 가정력

- 1946년에 홍성은 권사님과 결혼, 60여 년간 해로 하시면서 네 자녀를 목사, 교수와 사업가로, 치과의사로, 이비인후과의사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양육시키심
- 1948~1965 인천의 여러 초등학교 교사 역임
- 1965~1992 대광초등학교(26년간) 교감과 교장 역임

44년간 평생 어린이를 사랑하며 교육하는 기독교 교육자의 삶을 사심

교회봉사력

- 1957 인천 보합교회에서 장로장립
- 1967~1997 영암교회 장로시무(30년간)
- 1968 영암소년대(보이스카웃) 발대식 초대 대장
- 1998~2018년 2월 9일 영암교회 원로장로

포상

- 면려포장증과 국민훈장 동백장 훈장 (대통령)
- 교육 공로자 표창장 (교육회장)



故 한성철 원로장로님을 추모하며



심상훈 장로

고 이도명 원로장로님이 소천하신 날 우연히도 미국에 계시던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장로님과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 주셔서 영암교회에서의 나의 생활이 긍정적이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장로님은 집사님이셨고, 저는 갓 제대한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장로님을 처음 뵈었을 때 머리를 바짝 짧게 깎으신(요즘 강호동 스타일) 모습이셨는데 매우 고지식하게 보였습니다. 한 30년을 옆에서 뵈었는데 그 머리 스타일은 한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장로님을 옆에서 보고 느낀 것은 눈물이 너무 많으시고 감동을 정말 잘 받으셨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명하셨고 칭찬도 잘하셨지만 잘못된 것은 꼭 지적하셨습니다. 첫 아들(한윤천목사)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셨을 때 만난 파란 눈의 처녀를 사귀고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몇 달을 기도하시고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도 매우 철저하셨고 사모님(김명현 권사님)과의 금슬도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인생 89세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한을 다 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장로님께서 새벽의 눈물의 기도로 이겨내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장로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황광은 목사님도 만나시고 저의 어머니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Y

한성철 원로장로님 약력

1929년 8월 1일(음력) 평남 평원군 한천면에서 한재신님과 안덕신님의 5남 2녀중 3남으로 출생하셨다. 한천소학교, 송인상업고등학교, 원산농업전문대학에 재학 중 예수님을 만나시고 6.25 동란으로 가족들과 함께 월남하시어 1956년 5월 28일 김명현님을 만나 인천제1교회에서 결혼하셨다. 서울로 상경하여 동대문 종합상가에서 천광사를 운영하며 기독교상회와 국제기드온협회에서 활동하셨다. 숭실학교 감사를 역임하셨고, 1973년 영암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아 주일학교 부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책임자로 섬기시다가 1999년 원로장로로 추대되셨다. 이후 도미하여 한울림교회(뉴욕새빛교회, 뉴욕영광장로교회)에 출석하시다가 2018년 2월 10일 소천하셨다. 슬하에 3남 1녀와 며느리 셋, 손자, 손녀 일곱을 두셨다.



故 최운옥 권사님 천국 환송사 I



윤석봉 장로

잊을 수 없는 최운옥 권사님. 지금 저희들은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울리는 것 같고 권사님의 섬김의 손 때가 여기 저기 묻어 있는, 권사님께서 세우신 이 영암교회에 모여 권사님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며 권사님의 떠나

심을 사랑하시는 유족들과 함께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던 권사님의 기도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는 교인들을 찾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던 그 모습을 다시 뵈 수 없고 그 공훈과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없음을 슬퍼합니다. 주님. 이 시간 눈물 흘리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침통한 마음으로 권사님을 환송하는 교인들이 다시 만날 소망을 품은 기쁨으로 권사님과 마지막 작별을 하게 하시옵소서.

권사님은 처녀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아직 옥중에 계실 때 쓰신 편지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주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에 전하시고 체포되었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시며 믿음과 복음을 사수하셨습니다. 6.25 전쟁 뒤 수복 직후, 권사님 내외분은 이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교회가 부족함을 보시고 사시던 휘경동 집을 팔아 이 영암교회를 세우심으로 이제는 이 교회가 구원의 큰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위동으로 이사하신 후 식사하시는 밥상도 장만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 송실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시던 김창걸 장로님이 퇴근하시면 함석으로 만든 함지박을 얹어 놓고 밥상으로 대신하신 청빈한 삶을 사셨으나 세상을

향하여는 너무나 당당하셨고 떳떳하셨으며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본분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굳게 지켜오신 권사님 내외분이셨습니다.

3.1 운동의 요람이던 평양의 송실 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었고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 은평구 신사동 공동묘지 부지에서 송실 학교를 재건하게 된 권사님 내외분은 한겨울 엄동설한에 수북히 눈 덮인 공동묘지에 거적을 깔고 그 긴긴 겨울 밤을 매일같이 기도로 지새우셨습니다. 그 기도의 불길은 권사님 소천하시기 전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졌고 송실 고등학교가 명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밑거름과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외아들 김철민 장로님이 최전방 모처에서 군생활 할 때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본 어느 분이 그 아들을 얼마쯤 후방으로 전출시켜 덜 고생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 제안을 들은 권사님 내외분은 “그렇게 되면 철민이 대신 다른 사병이 그 자리에 들어와 그 고생을 할 것이 아닌가” 하시면서 교회의 장로 권사로써 할 짓이 아니다 하시고 그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거절이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후하신 분들이 정작 자신들과 가족들에게는 어찌 그리 냉엄하셨습니까. 권사님께서 살아 오신 그 믿음의 걸음들, 나버림의 삶, 진정 믿는 자로써의 삶이 저희에게 진정한 귀감이 되셨기에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권사님. 저희 모두 조만간 권사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그 때 천국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하늘 나라, 그리고 교회. 저희도 그 사랑과 일평생 계속 된 기도, 본 받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크신 위로 받으시며 먼저 가신 김창걸 장로님과 만나 천국에서의 삶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품에서 편안히 안식하시옵소서. Y

2018. 2. 28. 영암교회 윤석봉 올림

故 최운옥 권사님 천국 환송사 II



장지우 장로

김창걸 장로님께서서는 자서전에서 권사님의 성품을 외유내강이 아닌 외유내유라고 표현 하십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유순하기만 하다고, 그러나 신앙면에서는 매우 강직하다고 하십니다. 아내의 경건심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일과중 많은 시간을 성찰과 묵상에 할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천성이 주님 한 분으로 꽉차 있기에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결혼 첫날밤 아내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길을 가자고 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요, 남을 위해서 살자는 것이다.”

권사님과 60여년을 함께 해로하시면서 장로님께서서는 “운옥이는 나의 어머니다. 어버이 주일에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송이 있다. 304장이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라고 시작한다. 나는 넷째절을 부르기도 전에 눈물이 난다.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가 아니다. 예배에 함께 참석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 아내가 정녕 내 어머니라는 마음에서다.”

장로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나에게는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내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그의 두 손으로 나의 눈을 감겨주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권사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으로 권사님의 두 눈을 감겨 주셨기에 이제는 편안히 예수님 품 안에서 두 분이 반갑게 재회 하셨으리라 확신하며 약력 소개로 갈음합니다. Y

2018.2.28. 장지우 올림





최운옥 권사님 약력

권사님은 1920년 4월 24일 평안남도 중화군 중화면 정판리에서 최규식님의 1남3녀중 2녀로 출생, 2018년 2월 26일 별세하심 (만 97세)

학력

- 평남 중화군 중화소학교 졸업
- 평양 숭혜여학교 (미국 북장로교 재단) 졸업
- 평양 여자 고등 성경학교 (미국 감리교 재단) 졸업

사회봉사력

- 평양 고아원 교사
- 해방 직후 평양역에서 고국으로 귀환하는 난민 동포들을 돌보는 계명회 (고문:조만식 선생) 구호단 활동
-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 거부로 감옥살이
- 해방 후 송산리 인민학교 (교장:김형석교수) 교사
- 「대한수도원」에서 40여년간 기도와 성령운동에 매진
- 송실중 · 고가 폐교 위기 때, 그리고 은평구 신사동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까지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음을 김창걸 장로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구하기 60년” 자서전에서 증언하심
- 평생을 중보기도사역과 치유 기도사역

교회봉사력

- 영암교회 창립 발기인
- 영암교회 시무 권사로 23년간 헌신
- 송실교회 창립 발기인 및 송실학원 기도사역



즐거운 찬양과 맛있는 간식이 있는 곳



방서진
(초등 1부)

드디어 겨울성경학교 가는 날! 이천 부레미 마을로 출발한다.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라바를 틀어주셔서 지루하지 않게 갔다.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도자기를 만들러 갔다. 처음에는 차가운 클레이를 만지는 느낌이었다. 손이 갈색으로 더러워졌지만 기분이 좋았다.

다 구워진 그릇은 집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서 빨리 다 구워진 그릇을 보고 싶다. 도자기를 다 만들고 한라봉 따기를 하려고 비닐하우스에 갔다. 농장주인 아줌마가 어떻게 따는지 설명해 주셨다. 나는 커다란 한라봉 3개를 따서 바구니에 담았다. 어서 빨리 식구들과 맛있게 먹고 싶었다. 영암교회로 다시 돌아오니 저녁시간이 되었다. 배가 고파서 돈가스와 밥이 꿀맛이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찬양을 부르고 게임을 했다. ‘최고의 선물’, ‘He's changing me’를 부르는데 신이 났다. 나는 찬양을 부르며 기분이 좋아진다.

게임은 1,2,3학년 각자 구호를 외치면 된다. 우리는 바라바라바라밤을 외쳤다. 원래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수도가 막혀서 저녁에 집으로 가야했다. 많이 아쉬웠다.

영암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이 기다려진다. 친구들과 찬양도 부르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너무 즐겁다. 내년 여름 성경학교도 벌써 기다려진다. **Y**



우리들의 겨울 성경학교

(초등 2부)

밥도 맛있었고 멋진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수련회를 할 수 있었어요. - 5학년 이지민
친구들과 교회와 한 몸이 되는 거 같았어요. 재밋기도 하고 신이 났어요. - 4학년 배진송
독특하고 색다르고 재미있다. - 5학년 박서진

재미있었고, 맛있는 밥이 기억에 남는다. - 5학년 김종권

롯데월드가 재밌었다. - 4학년 김나은

영혼이 날아갔다 돌아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신이 났어요. - 4학년 박지원

재미있었는데, 가장 재미있던 것은 선생님이랑 배개싸움 한 것이다. - 5학년 임시량

비록 성경학교의 일부밖에 있지 못했지만 참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 5학년 손지호

친구들이랑 회전 바구니를 네 번 쯤 탔는데 재밌었다. - 4학년 한서정

롯데월드가 정말 좋았고 롤러코스터를 타서 정말 좋았다 - 4학년 김정윤

많이 즐기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 5학년 김동준

놀이기구를 타서 짜릿하고 기분이 좋았다 - 4학년 김재준

설교를 더 듣고 싶었어요 - 5학년 김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사람



신가은
(중등부)

제가 이번 중등부 겨울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평소엔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통해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선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흙탕물을 예로 들자면, 흙탕물에는 새 물을 부어도 여전히 흙탕물입니다. 하지만 흙탕물을 버려내고 새 물을 채운다면 깨끗한 물이 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새 마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것을 비우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 평소에 이 세대를 본받기 보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좋지 못한 것을 비우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핸드폰을 더 가까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긴 어렵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삶의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이번 수련회 동안 세족식을 통해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롤러장에서의 롤러스케이팅 활동과 그 밖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언니, 오빠,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Y**



우리들의 겨울 수련회

(고등부)

“이번 겨울수련회에 전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에 참석해서 온 맘 다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 스키장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참여했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다치지 않고 즐거운 시간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시설 문제로 모두 귀가해야 할 수도 있는 난처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일 년 전에 나에게 썼던 편지를 다시 펼쳐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했던 다짐을 다시 보고 나 자신을 반성하며 2018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뜻 깊었습니다.”

(고등부 2학년 최정우)

“지난 1월 고등부에서 진행된 겨울수련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많이 떠올리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부 2학년 유민아)

“고등부에서의 세 번째 수련회인 이번 겨울수련회는 나에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특별히 첫날밤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을 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좋

았습니다. 예배시간에는 전도사님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팬이 아닌 친구가 되어야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다가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다짐을 하게 해준 이번 겨울수련회가 참 좋았습니다.”

(고등부 2학년 남궁찬)

“매년 참석하는 수련회지만 저에게는 늘 항상 새롭고 가슴 설레는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는 지금까지 수련회 때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스키장을 갈 수 있어서 즐거웠고, 전도사님의 좋은 설교말씀으로 인해 더더욱 좋았습니다. 후에 금방 다가올 주님의 은총 충만한 여름수련회가 너무 기대됩니다. ㅎㅎ 영암교회 고등부 식구들 파이팅!”

(고등부 2학년 전형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김진영
(청년부 하늘공동체)

‘하늘 공동체’ 청년들은 보통 만 27세 이상으로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소그룹 리더가 시킨다고 그대로 다 하는 사람들도 아니어서 이번 겨울 수련회도 부담 없이 모임을 즐거워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 수련회 장소는 무려 홍대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장인들을 배려한 매우 훌륭한 장소 선정이었다.

나(하늘청년, 만28세)는 학교에서 매주 열리는 정기 금요일 세미나를 마치고 오후 5시쯤 넘어 홍대로 향했다. 다 같이 먹는 외식 타임을 놓쳐서 혼자 케밥을 사 들고 아무도 없는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 적적하게 식사를 끝냈다. 때를 맞춰 아는 얼굴들이 하나 둘 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동체를 홍대의 중심에서 만나니, 뭔가 새로웠고, 긴장도 됐고 조금 신도 났다. 비슷한 시간에 한 집사님 장로님 부부가 치킨 몇 세트를 풍족하게 전달해 주셨는데, 이렇게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어른들이 계신다는 것이 쑥스러우면서도 감사했다. 북적북적하게 사람들이 거실로 모여 동그랗게 앉아 예배 대행을 갖추고 나니, 오늘의 나의 목적, 수련회 예배 겸 강의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설교자는 서우진 목사님이셨고 주제는 성경 개관 내지 성경을 바라보는 큰 관점이었다.

말씀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러하다. 1)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과 닮아 있다. 2) 성경을 통해 역사 속에서 마치 아이를 기르는 부모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구분하여 이해해왔다는 것은 수련회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신을 더듬어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와 관련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떠올려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더욱 친밀하게 읽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일기나 블로그에 시간 순으로 기록할 때 하는 생각들은, 연대에 따라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를 쓴 화자의 의도나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을 문서에 담는 것은 시가서를 쓴 화자의 마음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누군가의 설교를 기록하거나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기록하는 것은 예언서를 작성한 화자의 생각의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들으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들을 직접 기록해 본다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두 번째 내용 또한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였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초반에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듯 어르고 달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성장할수록 훈육을 하시는 등 점점 그 방식을 달리하여 우리와 소통하시려는 하나님을 발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내용을 단지 편하게 들을 수만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에 맞게 그분의 교육법을 변화시켜 적용하여 오셨다면, 2018년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에 있는 자녀로 생각하실 것인가?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길 원하시는가?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대답해야 할 질문들을 얻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

예배를 마무리 하고, 우리는 여러 명씩 둘러 앉아 치킨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젊은이들이 술과 어두운 조명아래 그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흥대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늘 청년들은 콜라를 마시고 빙고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지금 생각해도 참 흥미로운 광경이지만 뭘 하든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나는 하늘 청년 겨울 수련회를 추억하며 그 때의 기억을 써 내려가고 있다. 아직도 매우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런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 또한 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왔는지,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이끄시고 계신는지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 그 와중에 나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지 계속 고민해 볼 것이다. 역시 수련회는 좋다. 다음 수련회에 더 많은 지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Y**



다윗, 땅에 밭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다



이성민
(청년부 푸른공동체)

모태신앙으로 처음 교회를 출입할 때부터 고등학교 때 영암교회에 정착해 이번 수련회를 준비 하기까지 교회에서 많은 수련회를 참석해 왔지만, 지금까지 수련회를 준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수련회 준비 위원회라 명명된 수련회 사전준비 모임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이제까지 준비된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기만 했던 내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향과 이제까지 수련회를 준비해오신 분들의 고민과 수고를 직접 느끼면서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월 18일부터 3일간 수련회를 위해 교역자님들과 영암청년들이 3주 전부터 시간을 내어 모여서 의견을 나누며 하나 둘씩 수련회의 기틀이 잡히고 세부계획이 세워지면서 가장 대두 되었던 고민이 ‘청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높은 참석률을 보일 수 있을까?’ 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영암 Live Radio’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은 모든 준비위원 들의 수련회를 위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탄생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 심에스터 강사님의 특강과 여러 청년들의 생각 나눔을 더 많이, 다양하게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부족한 것이 내심 아쉬웠습니다.

수련회 동안 수련회의 다양한 모습을 찍는 촬영을 맡게 된 것은 내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게 이번 수련회를 스태프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다른 푸른 청년들이 내가 준비한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촬영 하는 것 만으로도 좀더 명확하게 푸른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위하는지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촬영하는 것 만으로도 내게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청년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는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과 수련회 준비 위원 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영암의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Y

예수님의 부르심



박진희
(초등 2부)

이번 제자반의 타이틀은 교회였다.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교회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재밌었다. 특히 첫 번째 견학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간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에 가서 묘지도 둘러보고 전시관도 둘러보았다. 영상도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왔다.

그 중 우리는 아펜젤러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1885년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한 미국 감리교 선교사이다. 아펜젤러선교사님은 선교사가 설립한 최초의 근대사학인 배재학당을 세운 설립자이며 대한제국 시기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다. 아펜젤러선교사님은 배재학당만 세운게 아니라 정동제일교회도 세웠는데 이곳도 가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으로 한국을 섬기던 아펜젤러선교사님은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 배가 침몰하면서 순직하였다. 아펜젤러선교사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갔다.

아펜젤러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전에는 지구상에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나라 땅에 와서 전도하다 결국은 돌아가신게 안타깝다. 이렇게 선교사님들까지 돌아가시면서 힘들게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인데 교회가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제자반이 엄청 힘든줄 알았다. 그렇지만 제자반을 하면서 엄청 행복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기분이었다. 토요일에는 학원을 아침 일찍 가야해서 제자반을 못 했는데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제자반에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나도 선교사님들 처럼은 아니어도 친한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을 많이 전도 해야겠다.

이제 제자반도 하니까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것 이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열심히 교회에 대해 배우고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같이 떠들었던 것이다. 이번이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마지막 제자반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웠다. **Y**

삶 속에서의 예배



홍용수
(중등부)

이번 제자훈련의 주제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익숙하고 교회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렵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며 느껴온 것들과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토론하며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먼저 위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을 때 저와 친구들과 동생들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등 다양한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계속 토론을 진행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라는 말이 나왔고, 이후부터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이며,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제자훈련 교육 중에 우리는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인기나 명예를 예배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교육을 받으며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예배할 때는 없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가정과 학교와 학원 같은 곳에서 내가 보낸 한 주간의 생활을 설교와 친구들과 말씀 나눔을 통해 되돌아보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예배는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자훈련 중에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학교로 돌려보냅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자훈련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 아는 것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안에서 더욱 이해가 빨랐고 앞으로 빠르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인 영암교회와 영암 중등부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Y**

예담동산 레인보우



이제숙 집사

할렐루야!

먼저 예담 동산 91기 심볼 톱니바퀴로 예담의 문을 은혜 가운데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담 동산 72기 그루터기 방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영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제숙 집사입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여러분은 톱니바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요? 네에~ 톱니가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늘상 똑같은 날의 연속인 것 같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하지만 특별한 것이 없이 톱니바퀴같이 돌아가는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주바라기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톱니바퀴가 이탈되면 돌아가지 않듯이 우리는 가벼운 몸살이라도 나면 일상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창세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 1:1-2)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6일간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쉬셨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톱니바퀴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하나님의 톱니바퀴 중에 한 가지라도 이탈되어 버린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주바라기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작은 톱니바퀴입니다.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여러분의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듯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작은 지체들이 함께 맞물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바라기 여러분!

톱니바퀴같이 돌아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톱니바퀴의 소중함을 마음에 품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데 콜로레스! Y

나는 주님의 그릇입니다



오경민 성도

저는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곳 저 곳으로 부대를 옮기며 생활하다보니 한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했고, 또한 한 곳에 정착을 못한 마음과 생활 때문에 직분 없이 예배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 후 보문동에서 살게 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암교회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린지 불과 2년이 조금 넘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지만 아이 없이 둘이 지내다보니 평일과 주말에 둘이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혼자 교회를 다녀오는 것은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일본 유학 중 기독교 단체의 집착에 가까운 전도 활동으로 강한 거부감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주일예배 1시간 참여하는 것에만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무지가 서울 외곽이어서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아내의 간섭 없이 새벽예배에 참석했고, 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야근을 핑계로 간간이 참석한 수요일예배와 목요일 1:1 말씀교제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였기 때문에 예담 동산은 더욱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기도로 준비된 예담 동산은 저에게 있어서 예비 된 곳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둘째 주 일본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은 둘째 주 화수목

요일에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이에 저는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 화수목요일에 다녀와?” 아내는 “아니 1월만 화수목(9~11일) 다녀와.” 그 다음날 새가족부 기노창 집사님께서 평소와 같이 오전에 말씀문자와 함께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예담 동산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후 잠시 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1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예담 동산에 올라서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한 분들도 제 마음과 같은 표정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스페인에서 시작된 영성훈련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어서 그런지 일부 용어도 스페인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엔 다소 서먹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통언어인 말씀과 찬양으로 굳었던 얼굴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담 동산에 올라오신 분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세례를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 성도, 집사, 권사, 전도사, 장로, 목사 등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모두의 공통점은 다들 참 많은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 직장, 건강 등 다양한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 찾아 온 지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다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금세 하나로 뭉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 눈앞에 뚜렷하게 쓰인 말씀...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출입문 한쪽 문에 세로로 쓰인 글귀를 읽었습니다. 글귀를 본 순간 어느 곳에선가 봤던 것인데 싶으면서도 성경의 어느 구절(갈라디아서 2:20)인

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주님의 그릇일 뿐이구나’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소리 없이 제 두 뺨으로 눈물이 흐르고 제 입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제가 무엇인데, 제가 대체 무엇이기에 주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주님, 저는 그저 감사드린다는 마음과 말뿐인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담 동산에서 만난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선명하게 삶속에서 이뤄주십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제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담 동산을 다녀온 후 맞이한 첫 주말 아침에 아내와 식사 후 차를 마셨습니다. 제가 “여보, 나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마다 찬양대의 여성분들은 4줄이나 되는데 남성분들은 반줄도 안 되는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 혹시 찬양대에 지원해도 될까?” 라고 묻자 평소 교회에서 왜 이리 늦게 오냐는 핀잔을 주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말에 둘이 같이 붙어 있다고 특별하게 뭘 하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렇게 3부 찬양대에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양대에 이어서 예향찬양단의 남성들의 빈자리도 보였습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찬양대 연습일이 금요일이라는 얘기를 했고, 2월 첫 주 금요일 저녁부터 예향찬양단 연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은 더욱 변화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었으며, 이런 가정에서의 마음 속 변화는 그대로 직장

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군생활 20년이 지난 이제야 (그 동안 놓친 수많은 만남을 안타까워하면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하며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더욱 간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의 시기와 질투, 악랄한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는 중보기도에 힘입어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낯선 이들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교제와 같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세상적인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준 91기 예담 동산 어부들과 섬기는 이들의 중보를 통해서 또 다시 주님께서는 말씀(호세아 3:1-3)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 제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Y**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봉근 집사

고난주간이 되면 언제나 특별 새벽기도회를 맞이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 받으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의 기간을 알고 또한 이러한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고 고난을 조금이나마 함께 체험하여 그 믿음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의 목적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정리해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힘들다고 늘 고난만을 묵상하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이 극복되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소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그 고난의 진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되새김함으로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되새기는 것이 기도로 새벽을 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작년 이맘때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생각해 보면, 저

는 두 번밖에 참석을 안 했지만 그것도 중간에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피곤한데 한 숨 더 자는 것이 낫겠다 싶은 알팍한 피가 발동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너무도 어리석었던 기억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로 용서를 구해 봅니다.

그 이후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성훈련이 되었고 이를 통해 말없이 다듬어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로써 쓰임새가 있기를 다짐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온갖 생각이 교차를 합니다. 새벽기도회에 나가서 무엇을 주제로 기도를 할까? 몇 시에 알람을 조정해 놔야 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 준비해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자체가 생활화 되어 있다면 이런 저런 고민을 하지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저는 새벽공기를 가르면서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와의 거리는 단 5분 거리에 불과한데 그 동안 너무나도 먼길을 돌아서 오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본당에 도착해 보니 오히려 더 먼 거리에서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일찍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반자리를 찾아 앉아서 기도를 드립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참 잘 왔구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특별 새벽기도회에 왜 그동안 적당히 참여했을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특별히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무엇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군가 제게 질문한다면 서슴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은 참회하고 회개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 말씀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에 와 닿고 빛의 진리로 깨우시는 말씀이라서 기록해 두었다가 집에 와서 다시 되새김을 해봅니다.

이른 새벽부터 한 영혼을 깨우시는 말씀에 믿음의 소망을 거룩하게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쉬지 않고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준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고난주간의 중요성은 우리 안에 팽배해 있는 불법적인 허위의식과 스스로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는 종교적인 의인의식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믿음 소망의 잣대로 허위의식과 의인의식을 깨뜨림으로 십자가의 의를 입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의인이라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주변에 소망 없이 사는 연약한 죄인들을 어떻게 허물을 덮어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정죄만 하였던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자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의인의식은 타인을 평가하기에 몰두했고,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배타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계급간의 서열을 깨고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녀가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주변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흡수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하고 그 순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법적인 허위의식과 종교적 의인의식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한 주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Y**

2018.4.20. 영암교회 박봉근 집사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조규완 장로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마치면서 처음 간증을 부탁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도 많이 모자란 제가 감히 많은 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수료식이 있었던 오후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참으로 떨리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긴장되었던 순간들을 다시 글로 옮겨 적으려니 또 다른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제가 느낀 소감이 이제 시작하려는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족한 글을 감히 올려 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작게나마 조금씩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깊이 뉘우치고 회개한 것은 제가 그 동안 이 양육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접할 기회는 많았지만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거리를 찾기에 급급했었고 오랫동안 믿음생활을 해왔던 저였기에 제 마음 한구석에 자만과 오만함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그리고 영암교회 문턱을 드나들던 긴 시간만을 생각하면서 ‘일대일 개인과의 학습을 통해 내가 더 배울게 있나? 이제 와서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오만함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편협함과 교만함을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반성하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의 믿음생활에 대한 기본이 좀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통하여 전보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까지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성경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고 또 굳이 그렇게 알고 애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재와 참고서적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과제물을 가지고 고민하고 양육자이신 정연안장로님과 주일날에 만나 짧지만 한두 시간 함께 QT를 나누며, 때로는 주제토론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

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말씀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가며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속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양육자이신 정연안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양육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준비를 통해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교재도 직접 구입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며 먼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는 열정과 열의를 보고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이고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멘토로 두고 귀한 가르침과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암교회의 또 다른 큰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영성과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육체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보다 말씀이 견고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제자훈련이 우리 젊은이들에게까지 잘 연결이 되어진다면 장차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가장 큰 밑거름이요 그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암공동체 많은 성도님들께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이 무엇일까? 정말 그걸 하면 도움이 될까? 나도 정말 할 수 있을까? 등등 망설이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과정을 통해서 믿음생활에 대한 자신의 기본기를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다져 나가면서 확실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의 깊이와 높이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Y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



윤태주 집사

은총의 절기인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값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봄 햇살이 따사로웠던 4월12일에 구역교사와 권찰, 소그룹 리더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렸던 ‘구역지도자 수련회’를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차창밖으로 보이는 강원도 산천의 봄은 신록의 연두빛과 꽃들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1박 2일동안 받을 은혜를 상상도 못한 채, 자연 풍광을 감상하며 ‘한경직목사님 기념 추양하우스’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경건예배를 드리며 유상진 담임목사님께서 한경직목사님의 생애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추양하우스는 우리나라 최초 ‘템플턴 상’을 수상한 한경직목사님을 기념하는 공간이며 ‘템플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미국의 사업가 템플턴(John Templeton)이 노벨상에 종교 부문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1972년에 재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한경직목사님은 상금 102만달러(한화 약10억원)를 북한을 위해 선교헌금으로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를 되찾는 것이 한국청년들이 해야할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둘째,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과학을 배우게 해야 하며,

셋째, 애국심과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안되고, 근본적으로 먼저 사람이 바로 되어야 하기에 예수를 믿게 해야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글은 한경직목사님께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후 전도사업, 교육사업, 봉사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목표로 정하고 다비다 모자원, 세계 선명회(현재 월드비전), 영락 경로원 등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셨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목사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분이 기도하셨던 기도처를 한 바퀴 걸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소나무 숲의 진중한 푸르름이 한경직 목사님의 곧은 성품과 닮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더불어, 목사님들께서 직접 자료를 찾으시고 영상을 준비하셔서 그 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강원도 7번 국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셨던 김한달 순회전도사님과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한달 전도사님은 기독교에 입문한 뒤 개척교회 순회전도사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강원도 삼척은 미신이 강한 바닷가 고을이었는데, 기독교에 입교한 김

전도사님과 가문은 이웃으로부터도 심한 냉대와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1911년 삼척시 산양리 홍순옥의 집에서 창립예배를 드리며 하가교회를 세웠습니다. 삼척제일교회(1912), 동해북평제일교회(1913), 망사 죽전교회(1914) 강릉 옥계교회가 모두 그의 발길이 닿으면서 시작된 교회라고 합니다.

로버트 하디(Robert A. Hardie) 선교사는 원산 부흥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의 동쪽 허리인 고성, 속초, 양양, 강릉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현재의 7번 국도인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따라 선교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901년 강릉중앙감리교회, 고성 간성감리교회, 양양감리교회가 각각 세워졌다고 합니다.

힘준한 강원도 산맥도 두 분의 복음전파를 위한 헌신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을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시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감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 눈 뜨게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후, 통일전망대로 가서 저 멀리 금강산 끝자락을 바라보며 울컥하는 맘으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다음세대를 위한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바다부채길에서 동해바다의 푸른 물결과 웅장한 기암괴석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칭찬해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참 행복했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는 만항재에서 쏟아질 듯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을 구경을 하였습니다. 잠시 여고시절로 돌아가 윤동주의 ‘별 헤는 밤’도 중얼거리

며, 무수히 많은 작은 별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리며 돌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별처럼 예쁜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여, 하룻밤 한식구가 된 조원들과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정선군 남면에 있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교회인 증산제일교회로 향했습니다. 유상진담임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10년간 담임하셨던 교회였습니다. 둘째 날 경진회를 통해 ‘서로 먼저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담임목사님의 가정도 강원도 복음화 벨트에 연결된 귀한 가정임을 깨닫고 귀한 목사님과 함께 영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후 화암약수터 산책길에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의 향연 속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름진 얼굴 환히 펴서 사진촬영도 하였습니다.

1박2일의 알찬 구역지도자 수련회의 행복한 여정을 통해, 겨우내 게을렀던 신앙이 기지개를 켜며 물든 동산에 축복이 흐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구역식구들에게 흘려보내며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공동체만들기를 힘쓰는 구역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설교와 가르침으로, 맛난 커피배달로 섬겨주신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여전도회협의회 강미량 권사님을 비롯해 섬겨주신 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Y

실패한 영웅을 통해서도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브루스 맥도널드 감독의 ‘삼손’



강진구(안수집사,
영화평론가)

돌아온 영웅 삼손

구약성경 사사기의 영웅 삼손이 스크린에 복귀했다. 세실 드밀(Cecil B. DeMille) 감독의 영화 <삼손과 데릴라>(Samson And Delilah, 1949)로부터 근 70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TV용이나 DVD 용으로 제작된 영화는 있었지

만, 참으로 오랜만에 극장개봉용으로 한국의 관객을 찾았다. 드밀 감독은 근육질을 뽐내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빅터 마추어)을 히브리민족의 신앙과 전통을 어기고 이방인 블레셋족의 아름다운 처녀 데릴라(헤디 라마)와 사랑에 빠져 몰락하고 마는 영웅의 모습으로 그려냈다. 우리가 기억하는 삼손의 이미지는 모두 드밀 감독의 영화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브루스 맥도널드 감독의 2018년도 영화 <삼손>은 데릴라의 선정적 유희를 걷어내고 삼손에게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삼손이 놀라운 힘으로 벌이는 살육장면 역시 성경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한도 내에서 폭력이 절제된 모양새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대중이 기대했던 화려하고 스펙터클하며 더 나아가 선정적인 장면은 속 빠진 기독교 신앙영화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손과 블레셋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다

영화 <삼손>은 데릴라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드밀 감독의 영화와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실인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의 발렉왕(빌리 제인)과 그의 패역한 아들 랄라(잭

슨 라스본)와의 대결 구도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은 삼손의 정체성을 데릴라와의 관계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감독의 성경적 충실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영화는 감독의 상상력이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과 적어도 90% 정도는 일치하고 있다.

영화의 주된 갈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삼손과 우상 다곤(Dagon)을 섬기는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묘사되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점이다. 흥미롭게도 블레셋 왕 발렉이 우상 다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언급을 통해 다곤신이 진정한 신이 아닌 단지 통치의 수단에 불과한 사실을 고백하는 장면이 영화에는 등장하고 있다. 블레셋의 발렉왕(빌리 제인)은 아들 랄라(잭슨 라스본)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저들에게겐 상징이자 평민들에게엔 숭배의 대상이지만 우리에게엔 통제의 수단이야. 내가 다곤이고 너도 다곤이 될 수 있어.”

우상숭배를 통해 백성을 통제하는 한편으로 스스로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과거 권력자의 속성을 한순간에 알아챌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라고 속단하고 만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로써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삼손이 힘도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 붙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자신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삼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감동되어 있을 때 그 힘이 나타났을 뿐이다. 즉 삼손이 여호와와의 신

에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 손에 아무 것도 없어도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고(삿14:6),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삼십 명을 쳐 죽일 수 있었다(삿14:19).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이 아닐 수 없다. 영화 속 삼손은 말한다. “벌써 두 개를 어겼는데 머리마저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

2018년 영화 <삼손>은 예술적이거나 대중적 의미보다도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에게 신앙적 영웅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사기의 문화적 상황은 지금의 포스트모던 사회와 닮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이를 가치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17:6, 21:25)

이 보다 더 사사기의 주제를 압축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로부터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족속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며 울부짖으면 그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늘 반복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 잡아주고 인도할 지도자가 부재



했던 까닭이다.

예술과 패션에서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맞으면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문화적 상대주의에 익숙하다. 지나친 상대주의는 진리마저도 개인의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마저도 재단해 버리는 것이다.

또 한가지 삼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삼손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적군에게 잡혀 두 눈을 뽑힌 채 다곤 신전에 붙들린 상태에 놓이지만 죽음을 통해 살아있을 때 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였다(삿16:30). 곁에서 보기에 그는 조롱받고 팔을 벌린 채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까닭에 그의 죽음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 신학자들이 삼손을 예수와 비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Y

영암교회의 선교 동역자님들께!



이성호 선교사
(케냐)

케냐 현지 소식

케냐는 작년 8월의 대통령선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선거를 치루도록 선포했습니다. 그 후 재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확정되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야당 후보가 불복하고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면서 대통령이 두 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조금은 긴장이 되었었으나, 합의 국면에 접어들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약 5시간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인 이 시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소말리아 알샤바브 테러리스트들이 대법원 폭파 테러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일부는 경찰의 총격에 사살 당하고, 일부는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가리사 대학 테러 사건이후에 한동안 잠잠했던 테러 사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저는 이번 학기에는 조직신학과 모세오경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선교 단체에서 파송된 출판사역을 하는 기관을 알게 되어 그 동안 준비한 강의 내용을 책처럼 편

집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료가 너무 귀해서 이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학과 내용을 잘 배우고 습득하여 목회 현장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 동료, 귀한 학생들

저희 학교에 세멘야(Semenya)라는 케냐 여자 교수님이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에서 돌아와서 보니 유방암 선고를 받고 치료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학교 강의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는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그 동안 멘토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해오던 은두위가(Nduwiga) 학생은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마치면 곧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학생이라 공부를 계속하여 학교에서 교수 요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후원자께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족 소식들

제 아내는 지난해 시작한 조그만 사업을 꾸준히 잘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2시간 떨어진 네쉬빌에 있는 저희 아들들이 방문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상원(Joshua)이는 새로운 회사를 찾으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혜원(Joyce)이는 정서가 많이 안정되

어졌고, 아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 지원(Caleb)은 전공을 컴퓨터로 바꾸고 학교도 바꾸면서 지금은 쉬면서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 새로운 학기에 복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 준비

영암교회 청년공동체에서 저희 지역에 단기 선교를 오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5일-14일 까지 우쿰다의 초등학교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사역 기간 동안에 말라리아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케냐 선교사역 동역자님들께서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멀리 케냐에서 그 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흥흥하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변함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천국으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동역자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케냐에서 이성호 선교사 드립니다. **Y**

기도제목

1. 학교사역과 현지를 위한 기도

- 현지 브릿지월드 대학(Bridgeworld College)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 세멘야(Semenya) 교수님이 항암을 잘 이겨내고 온전히 치료 되도록
- 은두위가(Nduwiga) 학생의 다음 과정인 대학원 입학이 잘 진행되도록
- 제가 지속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 강의 준비를 잘해서 내용을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 이번에 가르치는 두 과목(조직신학, 모세오경)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도록

2. 케냐의 안전을 위한 기도

- 테러 사건이 다시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 강도 사건의 위험이 사라지도록
- 영암교회 청년부 단기선교팀이 온전한 준비와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3. 가족을 위한 기도

- 제 아내의 지속적인 건강유지를 위해서
- 첫째 아들 상원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직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 막내 아들 지원이의 새로운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잘 준비 하도록
- 저희 딸 혜원이가 잘 배우고, 정착해 나가도록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김혜림 집사
(소망교회)

남다른 선교의 소명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이자 스티드, 그녀는 영국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훈련을 받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 안타깝게도 그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

리고는 1875년 미국인 청년 스티드와 결혼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어느 해 여름, 루이자는 남편 스티드와 4살 된 딸을 데리고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근교에 있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지른 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루이자의 남편 스티드는 앞뒤 돌아볼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소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안간힘을 쓰며 스티드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 바람에 소년과 스티드 두 사람은 모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의지했던 남편을 잃은 루이자는 이 뜻밖의 사건 이후 식음을 전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깊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 예수 한분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그녀는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며 도리어 행복과 은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이 될 수 있다고 한 시인이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 올 때도 있으며, 친구나 가족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우리가 받았던 믿음의 증거들을 떠올리며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된 루이자는 어릴 적 가졌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딸과 함께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모든 분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신앙의 선배를 기억할 때 큰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Y**

*김혜림 집사님은 소망교회에서
영어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토요일 5시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라디오의
찬송교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행복한 영어성경반



한혜정 성도

영어성경 반에 들어오게 된
은 나에겐 큰 영광이며 하나님
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한다.
한글 성경도 잘 모르면서 영어
성경을 공부 한다는 것은 참으
로 어려운 일이지만 축복받은
일임에는 틀림없다.

신효헌 장로님을 비롯하여
영성반원들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고마웠다. 영암교
회 60주년 기념일에 초청장도 보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신故이정선 권사님에게 특히 감사하다. 영성 반에
서는 이정선 권사께서 본인 자리에 저를 데려다 놓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한다.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드리
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따름이다.

과거에 배운 영어단어도 가물가물한데 가끔씩 아는
숙어나 단어가 나오면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다시 학
창시절로 돌아온 듯하다. 호주,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대사로 활동하신 신효헌 장로님께서는
영어성경 수업도 으뜸이지만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겪은 체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신다.

신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
음이 진정으로 깊게 우러 나온다. 지금까지 살면서 열
심히 기도해서 안 된 것이 없었다고 하시는 장로님의
깊은 신앙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든다. 여
러 나라 대사로 근무하실 때 생각나는 말씀을, 폭 넓은
강의로 영어성경시간에 관련된 스토리와 함께 말
씀해 주실 땐 너무 가슴에 와 닿았다. 언제나 긍정적
인 마인드를 가지고 힘차고 똑똑한 발음으로 수업하
시는 신 장로님의 영어성경 시간은 항상 평화롭고 화
기애애한 분위기다.

신 장로님께서서는 캄보디아에 2년 동안 선교사로 가

셔서 그 곳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어를 가르치
셨다. 열악한 환경에서 몸에 무리가 와서 잠시 귀국하
여 웬만큼 치료가 되자 다시 선교사 임무를 성공적으
로 완수하고 오셨다. 선교활동 때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운 역경 속에서도 즐겁게 선교하신 실감나는 말쑤
에 우리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그 분의 반
려자 이명희 권사님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으며 두 분의
봉사정신은 너무나도 훌륭하다. 2년 동안 선교활동을
하실 때 빈자리를故이도명 장로님과 박명현 권사님
께서 맡아 주셔서 고마웠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재능
기부다. 교재연구와 빈틈없는 준비물 등 학생들보다
더 열정적인 모습에 오히려 공부 해오지 않은 학생들
이 죄송했다. 그리고 제일 친진난만한 학생 최정자 권
사님(90세)은 영어실력뿐 아니라 꾀꼬리 같은 가곡실
력도 가지고 계시다.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싶다. 또
고경민 집사님께서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고마웠다.

젊으신 권사, 집사님들은 일찍 와서 차와 간식을
깔끔 하게 준비해 준다. 영어공부와 좋은 말씀, 맛있
는 간식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영어성경 반의 분위기
가 정말 좋다. 또한 교회에 익숙지 못한 사람을 도와
주는 최영자 권사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

우리 영어성경 반 모두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너무 행복한 모습들이
다. 영어성경 반이 더욱 활성화되기 바라며,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암식구들이 하
나님의 은총 아래 모두 건강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
다.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린다. **Y**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분남
(5여 안암2)



김승욱
(6남 다락방3)



김영자
(마리아 보문1)



김태혁
(6남 다락방8)



문영란
(7여 다락방3)



박세정
(7여 성동)



박영숙
(6여 수지)



유영선
(7여 대광1)



유원석
(6남 안암6)



이서연
(청년 안암2)

신년 · 성찬주일예배 1월7일(주) 1-4부 예배시

제직수련회

- 1월7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김충렬목사, 영세교회 원로)
- 1월14일 “잘하였도다”(정우목사, 미암교회)

교육부 및 청년공동체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일정

- 유치부 : 12월8일(금)~9일(토) 에버랜드
- 초등1부 : 1월27일(토)~28일(주) 교회
- 초등2부 : 2월3일(토)~4일(주) 교회
- 중등부 : 1월25일(목)~28일(주) 교회
- 고등부 : 1월26일(금)~28일(주) 교회
- 청년공동체(푸른) : 1월18일(목)~20일(토) 교회
- 청년공동체(하늘) : 2월23(금)~24일(토) 흥대

영암학당

- 겨울특강 : 사도신경(김성욱전도사)
- 봄학기 : 출애굽기(서우진목사)

서울북노회 교사교육대회

1월13일(토) 영암교회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봉사활동

2월3일(토)

노원구 중계로 일대

우신장학생장학금 전달식

2월11일(주) 3부 예배시

- 고등학생 : 배진형 유민아 박성빈 권동일 정재윤 윤하은 박은서
윤준서(용문고) 오경철(대광고)
- 대 학 생 : 강성호 김승희 김영인 문민석 안홍진 유소영 장예진
최성호 이기혁(목양교회)

사순절 행사

(2월14일~3월31일)

- 사랑의 밀가루 보내기 운동
- 사순절 브로셔
- 나만의 십자가 만들기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선교주일

3월4일(주)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 설교,

양봉식목사(교회와신앙) 선교보고

봄학기 개강

- 전도학교 3월6일(화)
- 구역지도자모임 3월7일(수)
- 교육부 학생 제자훈련 3월10일(토)
- 교사 학부모 바이블 아카데미 3월10일(토)

- 늘푸른대학 3월15일(목)
- 제 15기 아기학교 3월15일(목)

늘푸른대학

3/15	소통이 행복이다	김정환강사(시니어해피라이프 연구소)
3/22	천근만근 내려놓기	김종균교수(시화병원건강연구소 실장)
4/5	치매예방 댄스	김미혜강사(경희대체육학과 리듬댄스전공)
4/19	기분 좋아지는 미술치료	박우정강사(꿈틀이인성교육연구소 대표)
4/26	소 풍	강화도 역사박물관
5/3	성경 특강	서우진목사(영암교회 부목사)
5/10	영화 감상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5/17	찬양과 노래	김혜린선생(영암교회 글로리아중창단 지도)

성찬식

3월25일(주) 1-4부 예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월26일(월)~31일(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갈2:20)

성금요일 예배

3월30일(금)

부활주일 새벽예배

4월1일(주)

성북교회연합회 부활절연합찬양제(시온찬양대 참가) 하늘이음교회

구역지도자수련회

4월12일(목)~13일(금)

한경직목사기념 추양하우스, 김한달순회전도사 유적지

황광은목사 평전이 수록된 「사랑하며 춤추라」 출판기념예배

4월22일(주) 찬양예배시

서울북노회 제 70회 정기노회

4월24일(화) 태릉교회

목사안수식 권세진전도사(고등부) 김주환전도사(청년공동체, 예향찬양단) 4월24일(화) 정기노회 시

전교인이 함께하는 성북천 걷기대회

4월29일(주)

C채널 설교방송

(유상진담임목사) 비전메시지(매주 목요일, 낮12:50)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